

인도네시아 식민시대의 공간양식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design in the colonial period in Indonesia

Author 강유나 Kang, Yu-Na / 정희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전공 석사과정
 오혜경 Oh, Hye-Kyung / 참여이사,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전공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space design appearing in facade and interior composition factors of buildings in the colonial period in Indonesia. Research method is a field study, and subjects of the study is 14 buildings built in the colonial period located in Jakarta. The research result is as follows. First, Facade is divided into C type (colonial style), CT type (colonial style + traditional style), CA type (colonial style + art deco style), and CTA type (colonial style + traditional style + art deco style). Among them, CT type which shows both a colonial style and traditional style accounts for the most. As for Java traditional style mainly shows Joglo roof style and bratticing decoration on top of gates, and the colonial style presents both an Amsterdam canal housing style such as narrow Facade and unusual Gable, and a classical style such as pediment, entablature, and columns. Second, interior space is divided into C type (colonial style), CT type (colonial style + Indonesian traditional style), A type (art deco style), and CA type (colonial style + art deco style). Among them, CT type was also accounted for the most. Selected traditional style is a shape of bratticing decoration on top of gates and a shape of tenon of Joglo housing structure. Colonial style showed classical style such as exposed crossbeams, columns, and pilasters, and as for unique decoration, there are Ancona decoration and Delft tile decoration. On one hand, art deco style used typical art deco factors such as contrast of various materials and complementary color or golden color use as well as zigzag or vertical lines and geometric ornament by combining with colonial style or traditional style. It is expected that such research result will be a practical reference data when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or interior design companies advance Indonesia.

Keywords 인도네시아 전통주택, 네덜란드 건축, 암스테르담, 식민지 양식, 아르데코
 Traditional Indonesia House, Architecture of Netherland, Amsterdam, Colonial Style, Art Deco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평균 25~28도 열대성 기후 지역에 3만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는 구석기시대에 시작된 역사에서 인도계 불교왕국 스리비자야(Srivijaya)와 힌두왕국 마자파히트가 번성하였다. 그러나 1602년 동인도 회사 설립 후 약 350여년간 네덜란드의 식민통치를 받았고 1945년에 독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는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이 2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짧은 시간 안에 5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며¹⁾ 동아 건설과 쌍용건설 등이 자카르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을 예정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

국에서 인도네시아에 관한 연구는 물론 일반 정보도 찾기 어려우며 관광지인 발리 외에는 여행책자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곧 다가올 인도네시아 주거 공간 또는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인도네시아 역사의 한 부분인 식민시대 공간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식민시대 건물의 패사드 및 실내 구성요소에 나타난 공간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며 연구의 결과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디자인연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2.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의 선정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ohk@khu.ac.kr

1) 매일경제, 제1585호, 2010년 12월15일자

인도네시아 식민시대의 중심지역은 현재의 따만화파힐라(Taman Fatahillah) 광장, 즉, 바타비아(Batavia)²⁾와 깔리버사르(Kali Besar) 운하 근처에 식민시대 건물이 모여 있으며 그 외에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본 연구는 두 중심지역과 그 외 지역에 남아있는 건물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조사 하였다. 조사대상의 선정은 인도네시아 식민양식 건축물에 관한 도서³⁾ 및 사이트⁴⁾를 참고하여 네덜란드가 물려가기 전 1945년까지 지어진⁵⁾ 자카르타에 위치한 14건물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중 몇 건물이 방치되어 내부를 공개하지 않아 2곳은 조사가 불가능했고 Merdeka Palace는 현재 대통령궁으로 사용하고 있어 내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Ceramics & Arts Museum의 내부는 외부와는 달리 많은 훼손이 이루어졌고 또 어떠한 특징도 발견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실내는 총 10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자카르타 소재 식민양식의 건물

번호	건물명	주소	연도	실내
1	Museum Wayang	27 Jl. Pintu Besar Utara	1640	0
2	Jakarta Historical Museum	Jalan Taman Fatahilah	1707	0
3	Toko Merah	Jl Kali Besar Barat Kota	1730	
4	National Archives Building	Keagungan	1760	0
5	Museum Bank Indonesia	Jalan Pintu Besar Utara	1828	0
6	National Museum	12 Jl. Medan Merdeka Barat	1862	0
7	Ceramics & Arts Museum	2 Jl. Pos Kota, Kota	1870	
8	Merdeka Palace	Jalan Medan Merdeka	1873	
9	Batavia Hotel	44-46 Jl. Kali Besar Barat	1925	0
10	Kota Railway Station	Jl. Jembatan Batu, 11230	1926	0
11	Museum Mandiri	Jalan Bank – Pintu Besar	1933	0
12	Batavia Cafe	Tambora, 11230	1937	0
13	Post Office	Jalan Pos Kota	1937	0
14	건물명 미상	Tambora, 11232	-	

(2) 조사의 방법 및 분석

조사방법은 기초 문헌고찰 결과 인도네시아 식민시대 양식이 전통양식, 유럽의 식민양식, 아르데코양식이 혼합되어 있음을 인지하였고 따라서 참고문헌 및 학술논문 그리고 신뢰가 가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4곳의 건물은 문헌 및 웹사이트를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하여 PPT로 정리하고 현지조사에 앞서 건물의 대략적인 특성을 주지하였다. 실제 조사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20일

- 2)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기 위해 1619년 서부자바의 자카르타에 동인도 회사(Vereenigde Oost- Indische Compagnie-VOC)를 설립하면서 그 지역을 바타비아(Batavia)라고 명명하였다.
- 3) Amanda Acmadi, *The Past in the Present: Architecture in Indonesia*, NAI Publishers, 2007, p.53
Abidin Kusno, *The Appearances of Memory*, Duke University Press Books, 2010, p.34
- 4) http://en.wikipedia.org/wiki/Indonesian_architecture
- 5) 1945년 이후에도 자카르타에는 일련의 아르데코 건물이 지어졌으나 본 조사에서는 이들을 제외하였다.

까지 본 연구자와 관련교수 1인이 자카르타를 함께 방문하여 각 건물의 파사드(지붕부 전면벽, 기둥, 창/문) 및 실내 구성요소(천장, 바닥, 벽, 기둥, 창/문)의 특성을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관련 교수 1인과 함께 건물의 각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어떠한 양식에 속해 있는지를 찾아내어 전통양식, 식민양식, 아르데코양식으로 분류하였고 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2. 인도네시아의 식민시대 공간디자인

일반적으로 식민시대의 공간은 피식민지에 지배국가의 공간양식이 이식된 것으로 정의된다⁶⁾. 즉, 식민지에 세워진 건물은 식민지 주민이 아닌 식민주의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식민지역의 역사·문화보다 식민 모국의 것을 모방하거나 차용했다⁷⁾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당시 식민 지배국가의 양식이 식민양식을 결정하는 주요인이며 식민지의 기후와 자연환경에 따라 식민지의 전통양식을 혼합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식민양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전통양식, 네덜란드의 근세양식, 아르데코양식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2.1.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전통 공간양식

인도네시아는 만 3천개의 섬에 300여 종족이 살고 있는 국가로 종족들의 종교, 풍습, 주거 형태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슬라웨시섬이 중심이며 본 연구에서는 자카르타가 자바섬에 위치함으로 자바의 특성을 고찰한다.

자바섬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섬이 고상식 주거인데 반해 자바섬은 땅 위에 집을 짓거나, 다양한 높이의 석조 기단위에 지으며 조글로(Joglo) 양식을 사용⁸⁾한다는 것이다. Joglo의 주재료는 티크이며 주로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사각형 목재 가구식<그림 1-a>이인데, 못을 사용하지 않는 장부접합 방식<그림 1-b>이다. 중앙에 있는 4개의 기둥인 Soko Guru가 중심이며 Soko Guru<그림 2-a>가 받치는 중앙의 천장은 Tumpang Sari<그림 2-b>라 한다. Facade는 기단, 기둥, 지붕의 3부분으로 구성되며 지붕은 2단으로 아랫단은 완만한 경사이고 윗

6) Cyril M. Harris, *Historical Architecture Sourcebook*, McGraw-Hill Co., 1977, p.125

7) 박순관, 동남아 식민 건축의 흐름과 성격, 아시아 연구 제 5권 1호, 2002, p.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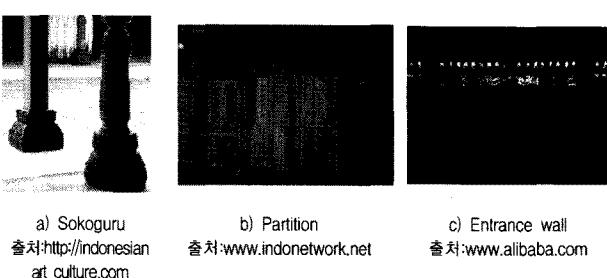
8) Dumarcay, *The House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15

9) William Warren et al., Luca Invernizzi Tettoni, *Tropical Asian Style*, Periplus Editions, 2007, p.24

단은 급경사로 사각뿔의 형태이다<그림 1-c>. 지붕 재료는 전통적으로 사탕수수나 야자수잎을 사용하였으나 식민지가 된 이후 붉은기와로 대체되었고 용마루에는 전통 장식이 있다<그림 1-d>. 출입구는 3개로 가운데가 주 출입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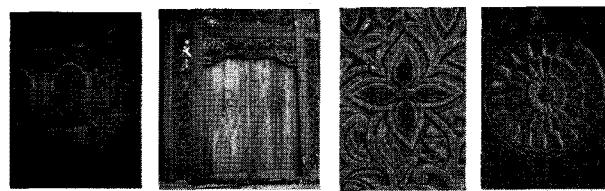


내부를 보면, 천장은 중앙의 Tumpang Sari외에는 지붕의 구조가 드러나는데 Tumpang Sari에는 장식이 없는 경우<그림 2-a>도 있지만 주인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정교한 장식<그림 2-b,c>을 한다. 사각이나 원형의 주춧돌 위에 원 또는 사각 나무기둥이 올려진 Soko Guru.<그림 3-a>에는 큰 장식이 없다¹⁰⁾. 벽은 추운지방의 벽 형식이 아닌 공간을 구분하는 Partition의 기능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끼워 넣으며<그림 3-b,c> 내벽은 거의 없다. 이들 Partition 벽 또한 장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각 장식<그림 3-b>이 있고 윗부분은 공기의 소통을 위해 투각<그림 3-c, 그림 4>을 하기도 하며 벽의 패널에는 얇은 조각에 칠을 하기도 한다<그림 5>¹¹⁾.



10) <http://www.tuforo404.com/tag/joglo>

11) <http://homysphere.com/joglo-javanese-traditional-home-architecture>



<그림 4> 벽/문 조각 장식
출처: www.indonesiateakfurnitur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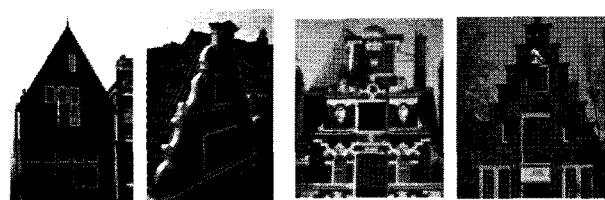
<그림 5> 패널 조각 장식
출처: Javanese Antique Furniture p.90

2.2.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의 양식

Renaissance가 들어오기 전 네덜란드에도 프랑스 고딕의 영향으로 성당이 상당수 지어졌으나 주택은 고딕을 단순화시킨 삼각지붕(Pointed Gable)<그림 6>이 많았다. 르네상스가 들어오기 시작한 1540년~1600년대에는 고딕과 르네상스가 혼합되었고 S나 C Strapwork¹²⁾ 박공장식이 성행하였다<그림 7>.

(1) Amsterdam Renaissance(암스테르담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정착한 17세기는 네덜란드의 Golden Age 시대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시청 등의 공공건물은 물론 운하를 따라 타운하우스 건축도 활발하였다. Amsterdam Renaissance는 17세기 초, 건축가 Hendrick de Keyser가 주도하였고 벽돌건물이 많으며 지붕의 계단형 박공(stepped gable)과 박공 가장자리 조각장식(sandstone sculptural elements). 창문양쪽의 필라스터<그림 8>가 특징이며 그 후 이것을 단순화한 Plain Amsterdam Renaissance가 출현<그림 9>하였다¹³⁾.



<그림 6>
Begijnhof 34
출처: www.nieste.org/

<그림 7>
Sint Annenstraat
출처: www.european-architecture.info

<그림 8>
OZ Voorburgwal 57
출처: www.european-architecture.info

<그림 9>
Herengracht 81
출처: studionoking.nl

(2) Dutch Classicism(네덜란드 고전주의)

1640~1665년, 건축가 Jacob van Campen이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돌아와 고전적 오더의 이상적 크기와 비례를 정리하고 특히 Facade에 기둥보다는 필라스터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네덜란드 고전주의가 성행하였고 암스테르담의 시청(현 Royal Palace)을 설계하면서<그림 10> 그 이상을 실현시켰다¹⁴⁾. 한편 암스테

12) 민찬홍·박영순·오혜경·천진희, 그림으로 이해하는 실내디자인용어, 교문사, 2005, p.57: Strapwork는 기하학적 형태나 아라베스크 형태로 끈을 서로 엮은 것처럼 만든 장식이다.

13) 문은미·전남일·박혜선, 네덜란드의 도시 네덜란드의 주거, 초판, 발언, 2005, pp.26~27 참고 및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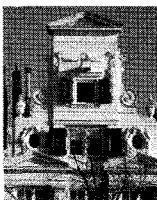
르담 주택 설계에 집중하였던 Philips Vingboons는 Facade가 좁은 운하주택에 고전적 요소를 정석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자 Step Gable을 간략화시켜 지붕 꼭대기가 긴 Neck Gable <그림 11>을 만들고 간소한 규모의 고전적 요소를 적용시켰다¹⁵⁾. 이 시기에 또 다른 Gable이 출현하였는데 깔대기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Spout Gable<그림 12>이 그것이며 이는 주택과 창고에 주로 사용되었다¹⁶⁾.



<그림 10> Royal Palace
출처:<http://en.wikipedia.org>



<그림 11>
Keizersgracht 319
출처:www.flick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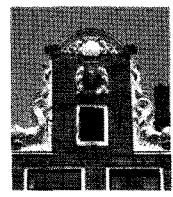
<그림 12>
spoutgable.
<http://picasaweb.com>

(3) Flat Style

Flat Style은 1665년 이후 고전주의가 감소하고 금속 주의가 성행하면서 필라스터나 조각장식이 줄어든 양식으로 파사드의 중앙에 위치한 주 출입구와 바로 위의 창, 그리고 맨 꼭대기 코니스에서도 중앙부분에 장식을 집중시킴으로써 축을 강조한 양식이다<그림 13>. Flat Style에는 지붕으로 수평 코니스가 쓰였는데 이는 Gable과 함께 17세기부터 시작되어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지붕처리 방법이다. Adriaan Dortsman가 대표 건축가이며 Neck Gable은 Pilaster가 사라지고 양옆에 사람 또는 동물조각<그림 14>이 붙었으나 이것도 차츰 줄어들면서 Bell Gable<그림 15>로 대체되었다¹⁷⁾¹⁸⁾.



<그림 13> Herengracht 462 &
Keizersgracht 604
출처: www.kiaasschoof.com



<그림 14> neck
gable 출처:
www.flickr.com



<그림 15> bell
gable 출처:www.buffaloah.com

(4) Revival Style

Revival Style은 1815년 이후에 그리스, 고딕, 르네상스 등 과거로 돌아간 양식이다. 1880~1900년대는 암스테르

14) http://en.wikipedia.org/wiki/Jacob_van_Campen

15) <http://tippinthescales.wordpress.com/2008/04/15/amsterdam-great-architects-3/>

16) <http://www.artnetherlands.com/GoldenAgeArch.htm#roll>

17) <http://www.european-architecture.info/HOLLAND/AMS-STY-FLAT.htm>

18) <http://www.artnetherlands.com/GoldenAgeArch.htm#roll>

담에 공공건물과 주택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제 2의 황금시대를 맞이하였고 이때에는 주로 네오고딕<그림 16>, 네오르네상스<그림 17> 양식이 성행하였으며 이 두 가지 양식이 결충<그림 18>되기도 하였다.



<그림 16> Reguliersgracht 57
출처:www.flickr.com



<그림 17>
Rokin 145
출처:www.studioko.nling.nl



<그림 18>
Damrak 62
출처:<http://nl.wikipedia.org>



2.3. 아르데코 양식

아르데코는 1920년대 파리에서 시작하여 1930년대에 국제적으로 퍼져나간 고대와 원시미술을 새롭게 해석하여 기계시대(Machine Age) 및 기능주의적 사회 분위기에 적용한 건축과 장식미술의 한 장르이다¹⁹⁾. 아르데코의 일반적 특징은 지그재그로 setback된 형태, 이례적인 재료의 사용, 장식적 벽화와 금속 및 유리제품의 사용이며 기하학문양과 꽃문양도 활용하였다²⁰⁾. 1910년~1930년 네델란드의 건축을 이끈 암스테르담파(amsterdam school)²¹⁾는 이성적이고 진보적인 데 스틸파와는 달리 지역문화의 특징을 표현하고²²⁾ 개인의 예술적 재능과 표현주의를 강조하면서 장식 또한 무시하지 않는 등 아르데코의 개념과 유사한 면이 있다²³⁾. 이러한 사조는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인에게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아르데코 건물이 자카르타에 다수 지어졌다.

3. 식민시대의 공간양식 사례 분석

3.1. Facade

Facade의 조사 대상은 14사례 모두로, 분석을 통해 4 가지, 즉, 순수한 식민양식인 C 유형, 식민양식+전통양식인 CT 유형, 식민양식+아르데코양식인 CA 유형, 식민양식

19) John Pile, A history of interior design, Laurence King Publishing, 2006 p.290

20) Shhilton, Stanley Abercrombie, Interior Design & Decoration, Prentice Hal, 2001, p.571

21) 김문덕, 네덜란드 근대건축이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조형연구, 건국대학교 조형연구소, 제9집, 2001, p.188 : 암스테르담파는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주택에 주력했던 표현주의 건축가들로 네덜란드의 전통적 재료인 벽돌 및 그 외 재료나 형태의 표현을 건축가의 상상력에 맡기고자 하였으며 지역성과 풍토성을 표현하고자 한 그룹이다.

22) 최재석, 암스테르담파 건축의 형성과 전개과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1호, 1996, p.112

23) <http://www.iis.u-tokyo.ac.jp/~fujimori/heritage/artdeco.html>

+전통양식+아르데코양식인 CTA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 C 유형

순수한 식민양식인 C유형은 3사례로 그 중 2사례(사례 1, 2)는 기둥보다 필라스터가 많이 들어간 네덜란드 양식이 아닌 페디먼트, 엔타블레이쳐, 기둥으로 구성된 프랑스나 영국의 팔라디안 신고전양식에 가까웠다. 그러나 사례3은 유사한 주택이 나란히 이웃해 있는 암스테르담 운하주택을 연상시키며 폭이 좁은 Facade와 Spout Gable, 출입구와 바로 위 중앙창이 강조된 Flat Style의 Facade 등 전형적 네덜란드의 주택양식이다.

<표 2> Facade - C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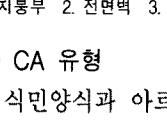
이미지	구성요소	유형
1 	페디먼트	C
	엔타블레이쳐, 도릭식열주	C
	사각 + 몰딩 + 나무출입문	C
	사각프렌치 창문	C
2 	페디먼트	C
	엔타블레이쳐, 도릭식 열주	C
	몰딩 + 사각 + 나무출입문	C
	사각프렌치 창문	C
3 	페디먼트	C
	엔타블레이쳐, 아치, 평선총	C
	반원아치+몰딩나무출입문	C
	사각프렌치창+덧문	C
4 	2단조글로기와지붕	T
	콤퍼짓오더, 엔타블레이쳐, 아치, 평선총	C
	몰딩+사각+나무출입문	C
	사각프렌치창, 반원창, 네잎장식창	C
5 	간소화된 1단 조글로기와지붕, 끝장식	T
	벽돌사용, 암스테르담타운하우스유사	C
	필라스터+코니스+나무문 2개 연속배열	C
	사각프레임창	C

1. 지붕부 2. 전면벽 3. 출입구 4. 창문

(2) CT 유형

식민양식과 인도네시아 전통양식이 함께 나타나는 CT 유형은 5사례로 공통점은 지붕부에 자바 전통양식인 조글로(Joglo)가 간소화되어 적용되었는데 사례3은 2단으로 전통에 더 가까웠다. 그 외에는 식민양식이 대부분으로 사례 1, 2, 3은 규모가 큰 공공공간으로 엔타블레이쳐, 열주, 페디먼트, 필라스터, 코니스, 아치 등 고전적 요소가 전면벽과 출입문, 창문을 구성하고 있었고 사례 4, 5는 주거공간으로 지붕을 제외하면 암스테르담의 타운하우스가 그 모티브라 볼 수 있다. 즉, 일반적 식민양식 주택에 나타나는 베란다와 개방된 회랑이 없고 전면벽이나의 면으로 되어 있으며 벽에 비교적 큰 창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사례4는 재료가 벽돌이고 덧문이 없으며 출입구가 쌍으로 있어 암스테르담 타운하우스가 나란히 있는 것을 상징화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례5는 출입구 윗부분을 투각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이는 실내·외에 공기를 통하게 하여 시원함을 유도하는 전통양식의 장점을 접목한 것이라 보여진다.

<표 3> Facade - CT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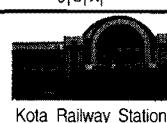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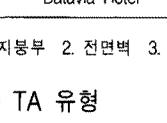
이미지	구성요소	유형
1 	조글로1단기와지붕	T
	엔타블레이처, 도릭식열주	C
	페디먼트+필라스터출입문	C
	페디먼트+필라스터창문, 나무덧문	C
2 	1단조글로기와지붕	C+T
	아치창크풀라, 페디먼트	
	도릭식열주, 반원아치, 필라스터, 코니스	C
	반원아치+몰딩나무출입문	C
3 	사각프렌치창+덧문	C
	2단조글로기와지붕	T
	콤퍼짓오더, 엔타블레이쳐, 아치, 평선총	C
	몰딩+사각+나무출입문	C
4 	사각프렌치창, 반원창, 네잎장식창	C
	간소화된 1단 조글로기와지붕, 끝장식	T
	벽돌사용, 암스테르담타운하우스유사	C
	필라스터+코니스+나무문 2개 연속배열	C
5 	사각프레임창	C
	간소화된 1단조글로기와지붕, 끝장식	T
	암스테르담 타운하우스와 유사	C
	필라스터+코니스+나무문, 윗부분투각	C+T
6 	프倫 치티크목프레임창, 티크목덧문	C

1. 지붕부 2. 전면벽 3. 출입구 4. 창문

(3) CA 유형

식민양식과 아르데코양식이 함께 나타나는 CA유형은 2사례로 큰 공통점은 없었다. 즉, 사례1은 전면벽 양날개에 있는 창문 양쪽 필라스터만이 식민양식이고 나머지는 모두 아르데코양식인데 반해 사례2는 지붕부의 반원아치가 Setback 되고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가 나타나며 수직창과 장식문양 등에서 아르데코가 적용되었고 기둥과 반원아치, 코니스, 발코니 등 비슷한 양의 식민양식도 적용되어 있었다.

<표 4> Facade - CA유형

이미지	구성요소	유형
1 	평지붕	A
	아치, 필라스터, 아치양옆구조물	C+A
	사각기둥위평선문양+나무문	A
	아치창, 양옆필라스터사각창	C+A
2 	반원Setback, 스테인드글라스창, 기둥	C+A
	도릭식기둥, 니치+조각물, 돌려깎기	C+A
	장식발코니, 문양(빛살, 평선총)	C+A
	팔라디오식창문양식의 출입문, 스테인드글라스창	C+A
3 	반원스테인드글라스창, 사각창	C+A

1. 지붕부 2. 전면벽 3. 출입구 4. 창문

(4) TA 유형

아르데코 양식과 인도네시아 전통양식이 함께 나타나는 TA유형은 2사례로 공통점은 지붕부에 자바 전통양식인 조글로 형식이 1단으로 간소화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아르데코 건물은 계단식으로 setback된 구조물이 있거나 유기적인 곡선 또는 유선형으로 자유롭고 굽곡있게 디자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카르타의 아르데코 건물은 상자형

에 가까워 평면적이며 많은 창의 배열로 수평선 및 수직선을 강조하고 여기에 기하학문양이 약간 첨가되는 소극적 표현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바 전통주택의 형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공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구부가 많은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사례1은 여기에 당시에는 이례적인 유리와 금속의 기하학문양이 더해진 구조물이 1층을 구성하고 있어 아르데코 양식을 볼 수 있었다. 사례2는 중간층에 오픈 베란다가 있어 전통적 공간구성을 찾아 볼 수 있고 벽면의 창과 창사이에 얇은 사각이 있고 꼭대기에 금색의 작은 삼각뿔 주두장식이 있으며 창문이 좁은 수직창으로 아래쪽에 그리드의 구조물이 있어 이 또한 아르데코를 표현하고 있었다.

<표 5> Facade – TA유형

이미지	구성요소	유형
1  Batavia Cafe	조글로1단기와지붕	T
	연속창배열, 금속+유리기하학문양벽, 수평선강조	A
	기하학문양유리/금속출입문	A
	수직창	A
2  건물명 미상	조글로1단기와지붕	T
	베란다, 연속창, 금색삼각뿔장식	A
	기하학문양나무문	A
	좁은수직기하학구조물창, 사각창	A

1. 지붕부 2. 전면벽 3. 출입구 4. 창

(5) CTA 유형

식민양식과 전통양식 그리고 아르데코양식이 함께 나타나는 CTA유형은 2사례로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조글로형식의 1단 기와지붕과 창이 많다는 전통과의 연관성이며 식물이나 기하학문양이 있는 주두의 필라스터가 있어 식민양식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아르데코를 보면 두 사례 모두 전면벽의 중앙 부분이 돌출되어 뒤로 setback되어 강조되고 있고 수직창이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례1은 지붕부의 양끝 코너가 지그재그로 파여 있고 사례2는 중앙 돌출부의 꼭대기 지붕에 setback된 구조물이 얹혀져 있으며 출입구에는 기하학문양 금속장식의 유리문이 중앙 돌출부 캐노피 아래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

<표 6> Facade – CTA유형

이미지	구성요소	유형
1  Jakarta Post Office	조글로기와지붕, 지그재그꼴장식	T+A
	연속창배열, 돌출부벽면Setback, 코린트식주두필라스터	C+A
	기하학문양나무문	A
	좁은수직창	A
2  Museum Mandini	조글로기와지붕, 중앙돌출부Setback구조물	T+A
	돌출부벽면Setback, 연속창배열, 긴베란다, 필라스터+키페던장식주두	C+T+A
	유리+기하학문양금속장식출입문	A
	수직창, 스테인드글라스	A

1. 지붕부 2. 전면벽 3. 출입구 4. 창

3.2. 실내공간

실내공간의 조사 대상은 총 10사례로 분석을 통해 4가지 유형, 즉, 순수한 식민양식인 C유형, 식민양식+인도네시아 전통양식인 CT유형, 순수한 아르데코양식인 A유형, 식민양식+아르데코양식인 CA유형으로 분류되었다.

(1) C 유형

순수한 식민양식인 C유형은 1사례로 천장은 얇은 우물천장이 두층으로 겹쳐져 있고 로비 곳곳에 아칸서스 잎과 소용돌이부분을 금색으로 칠한 비교적 큰 규모의 코린트식 사각기둥과 장식적 필라스터가 배치되어 있다. 벽은 대부분 페인트였으나 일부 벽에 회반죽으로 장식한 패널이 붙어있고 프론트 데스크 위에는 사각의 거울이 몰딩 격자 안에 배치되어 있으며 나무문에도 몰딩이 있어 식민양식의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용된 재료나 전체적 분위기가 다른 식민양식 공간에 비해 격이 떨어짐을 쉽게 인지 할 수 있었다. 이는 여러 차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결과라 보여진다.

<표 7> 실내공간 – C유형

이미지	구성요소	유형
1  Batavia Hotel Lobby	우물천장	C
	대리석마감	C
	회반죽장식상부벽패널, 아치, 거울장식	C
	금색주두장식의코린트식기둥	C
	몰딩프레임과몰딩나무문, 아치창	C

1. 천장 2. 바닥 3. 벽 4. 기둥 5. 창/문

(2) CT 유형

식민양식과 인도네시아 전통양식이 함께 나타나는 CT유형은 5사례로 공통점은 천장에 르네상스의 목재 노출들보 또는 범이 나타나고 사례 4를 제외하고는 기둥이나 필라스터 등의 고전양식과 사각틀이 있는 프렌치 창문, 몰딩이 있는 나무패널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전통양식은 사례1을 제외하면 문 위의 투각장식이 특징으로 이는 파사드의 주출입구에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이 외에 실내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이로써 문 위의 투각장식은 외부와 내부의 공기를 소통시키기 위한 장치뿐만 아니라 내부와 내부의 공기 순환도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특이한 식민시대 장식을 보면 사례 1은 벽에 안코나 장식²⁴⁾이 있었고 사례 3은 벽 아래 부분에 델프트(Delft)타일이 장식²⁵⁾되어 있었으며 사례 4의 천장은 인도네시아 전통주택의 지붕구조를 인용한

24) 민찬홍·박영숙·오혜경·천진희, 그림으로 이해하는 실내디자인용어, 교문사, 2005, p.175 : 조각을 놓기 위해 전축적으로 프레임이 있는 벽감이나 벽면에 안으로 들어간 곳을 말하는 이탈리아어.

25) John Pile, A history of interior design, Laurence King Publishing, 2006 p.139: 17세기 이후 널리 쓰이기 시작한 흰 바탕에 푸른색 문양이 있는 델프트(Delft) 도기류와 타일장식은 실내장식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실내에 접시류를 진열하거나 타일로 만들어 벽 아래 가장자리에 붙였다.

Barrel Vault였다. 한편 조글로양식 주택에 나타나는 장부 접합의 구조적 형태가 기둥의 주두로 쓰였음을 볼 수 있는데 사례 2를 보면 기둥과 서까래를 잇는 장부접합 형태를 주두에 강조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전통을 강조하고 있고 사례 5는 벽 상부의 필라스터를 받침대(Bracket)가 지지하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받침대가 장부접합의 형태이다.

<표 8> 실내공간 - CT유형

	이미지	구성요소	유형
1 Historical Museum		1 채색된 목재 노출빔 2 쪽마루 3 안코나장식, 전통식물문양조각 4 Pedestal위 코린트식기둥 5 물딩프레임과 물딩나무문, 아치창	C
		1 노출빔, 장식들보 2 대리석마감 3 필라스터 4 장부접합주두기둥 5 사각프렌치창, 상부투각물딩페널문	C
		1 채색된 목재 노출빔, 장식들보 2 대리석 3 벽아래 부분델프트(Delft)타일장식 4 터스킨식기둥 5 필라스터형식의 프레임+상부투각물딩페널문, 사각프렌치창	C
		1 전통주택구조의 Barrel Vault 2 사각타일 3 반원아치, 투각장식벽 4 - 5 사각창, 반원아치수직창살창	C
		1 채색된 노출목재빔 2 쪽마루 3 장부접합받침대(bracket)위 필라스터 4 - 5 사각창살창, 상부투각물딩페널문	C
2 National Museum			
3 National Archives Building			
4 Kota Railway Station			
5 Museum Wayang			

1. 천장 2. 바닥 3. 벽 4. 기둥 5. 창/문

(3) A 유형

아르데코 양식만 나타나는 A유형은 2사례로 크게 공통점은 없었다. 은행으로 쓰였던 사례 1은 전체적으로 모자이크타일의 장식이 돋보이며 이는 천장, 바닥, 벽 그리고 기둥에 반복되고 있다. 그 중 벽의 하부와 기둥 하부에는 명도가 낮은 유사색 모자이크타일로 공간의 아랫부분에 무게감을 주고 천장과 벽의 상부는 흰색 바탕에 금색 모자이크타일로 가장자리를 따라 사각의 띠를 돌려 반짝거림과 가벼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바닥은 보색의 타일이 역시 사각의 문양을 만들어 아랫부분의 무거움을 완화시키면서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스테인드



Delft 접시와 타일
출처:www.delfttiles.com/

벽아래를 장식한 타일
출처:John Pile, 실내디자인사, p.139

글라스의 창문과 더불어 모두 아르데코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체국인 사례 2는 내부의 용도상 기능이 강조된 공간으로 파사드의 지붕부 양끝 지그재그 장식이 내부의 연속된 아치 양 끝 부분에 반복되고 있어 내·외부에 연결성을 주고 있고 원반의 주두가 얹혀진 사각 기둥과 직사각 금속프레임이 있는 천장 등 많은 양은 아니지만 모두 아르데코의 요소들이다.

<표 9> 실내공간 - A유형

	이미지	구성요소	유형
1 Museum Bank Indonesia		1 노출들보, 금색모자이크타일사각돌림장식 2 모자이크타일사각문양내기 3 하부모자이크타일붙임, 상부금색모자이크타일사각돌림장식 4 하부모자이크타일사각기둥, 5 사각프렌치창, 스테인드글라스창, 사각페널문	A
		1 사각금속프레임천장 2 세라믹타일마감 3 연속된지그재그꼴장식아치 4 사각기둥원판주두 5 사각페널문, 사각창살프레임창	A
		1 천장 2. 바닥 3. 벽 4. 기둥 5. 창/문	
2 Jakarta Post Office			

(4) CA 유형

식민양식과 아르데코양식이 함께 나타나는 CA유형 2 사례는 A유형과 같이 큰 공통점이 없었다. 사례 1은 실내곳곳에 식민양식과 아르데코양식이 섞여 있었는데 특히 벽에는 반원아치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삼각형의 거울이 잇대어진 벽도 있고 그 재료도 텔을 가공하지 않은 가죽이 있는가 하면 서양고전양식의 패널도 있었다. 이는 기둥과 창/문에서도 계속되어 기둥은 피데스탈형 신고전양식의 기둥과 사각기둥이, 창/문은 몰딩이 있는 문과 기하학문양 금속프레임의 유리문이 대비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사례 2는 벽을 제외하고는 공간구성요소 각각에 하나의 양식이 주로 나타났는데 천장의 Coffered Ceiling이 있는 Barrel Vault와 반원아치 아래 양 끝 필라스터만이 식민양식이고 나머지는 모두 아르데코 양식이었다. 특히 원반이 두 개 겹쳐진 형태의 주두를 가진 모자이크타일의 원기둥과 금속장식이 있는 반원아치안의 수직창과 햇살 무양이 돋보였다. 사례 2는 A유형의 사례 1과 같이 은행이었던 건물로 유사한 장식이 보였는데 벽의 하부와 기둥 하부는 명도 낮은 유사색 모자이크타일, 천장과 벽은 흰색 바탕에 세부장식, 바닥은 반대색 타일의 대비 등으로 공간 아랫부분의 무거움과 윗부분의 가벼움 그리고 바닥의 화려함이 이를 중화시키는 방법이 그것이다.

<표 10> 실내공간 -CA유형

이미지	구성요소	유형
1 Batavia Cafe	평천장, 노출목재빔	C+A
	대리석, 석재 타일	C
	연속반원아치, 삼각조각거울장식, 송아지가죽벽	C+A
	피데스탈신고전양식기둥, 사각기둥	C+A
	몰딩페널문, 기하학문양유리/금속문	C+A
2 Museum Mandini	Cofferred Ceiling Barrel Vault천장	C
	사각3색대비문양타일바닥	A
	기하학문양장식벽, 모자이크타일하부벽, 필라스터위반원아치+햇살문양	C+A
	원반주두모자이크타일원기둥	A
	스테인드글라스창, 금속장식수직창	A

1. 천장 2. 바닥 3. 벽 4. 기둥 5. 창/문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네시아 식민시대 건물의 패사드 및 실내 구성요소에 나타난 공간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현장조사로 조사대상은 자카르타 소재 14건물이며 조사는 2010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본 연구자와 관련교수 1인이 자카르타를 함께 방문하여 각 건물의 패사드 및 실내 구성요소를 자세히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분석은 건물의 각 구성요소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 어떠한 양식에 속해 있는지를 찾아내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acade는 14사례로 분석을 통해 4가지 유형, 즉, 식민양식인 C유형, 식민양식+전통양식인 CT유형, 식민양식+아르데코양식인 CA유형, 식민양식+전통양식+아르데코양식인 CTA유형으로 분류되었다. Facade는 식민양식과 자바 전통양식이 함께 나타나는 CT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자바 전통양식은 주로 간소화된 조글로(Joglo) 지붕양식과 출입문 위의 투각장식이 채택되었고 식민양식은 폭이 좁은 Facade와 특이한 Gable 등 암스테르담 운하주택 양식보다 폐디먼트, 엔타블레이쳐, 기둥, 필라스터, 코니스, 반원아치, 원통형 볼트 등의 고전양식이 월등 많았다. 한편 아르데코 양식에서 전통양식과의 접목은 역시 조글로(Joglo) 지붕이고 식민양식과의 접목은 CT유형과 같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자카르타의 아르데코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초기 작품인 Chicago의 Oak Park에 지어진 일련의 주택들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실내공간은 10사례로 분석을 통해 4가지 유형, 즉, 식민양식인 C유형, 식민양식+인도네시아 전통양식인 CT유형, 아르데코양식인 A유형, 식민양식+아르데코양식인 CA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도 식민양식과 인도네시아 전통양식이 함께 나타나는 CT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채택된 전통양식은 문 위의 투각장식과

조글로 주택 구조의 장부접합 형태이다. 식민양식은 목재 노출들보, 기둥, 필라스터, 몰딩나무페널문등의 고전양식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이한 장식을 보면 안코나장식, 델프트(Delft)타일 장식 등이었다. 한편 아르데코양식은 지그재그나 수직선 등의 형태와 기하학문양은 물론 모자이크타일과 스테인드글라스, 유리와 금속, 텔이 있는 가죽과 삼각형의 거울 등 재료의 대비, 보색이나 금색등의 색채사용은 전형적 아르데코적 요소이며 이들이 식민양식이나 전통양식과 접목되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의 건설회사나 실내디자인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시 또는 한국 내에 인도네시아 관련 상업공간 디자인 시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Amanda Acmadi, *The Past in the Present: Architecture in Indonesia*, NAI Publishers, 2007
2. Abidin Kusno, *The Appearances of Memory*, Duke University Press Books, 2010
3. Cyril M. Harris, *Historical Architecture Sourcebook*, McGraw-Hill Co., 1977
4. Dumarcay, *The House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5. John Pile, *A history of Interior Design*, Laurence King Publishing, 2000
6. Shilton, Stanley Abercrombie, *Interior Design & Decoration*, 5 edition, Prentice Hal, 2001
7. William Warren et al,Luca Invernizzi Tettoni, *Tropical Asian Style*, Periplus Editions, 2007
8. 민찬홍·박영순·오혜경·천진희, 그림으로 이해하는 실내디자인 용어, 교문사, 서울, 2005
9. 문은미·전남일·박혜선, 네덜란드의 도시 네덜란드의 주거, 초판, 발언, 서울, 2005
10. 박순관, 동남아 식민 건축의 흐름과 성격, 아시아 연구, 통권 제1호, 2002
11. 남경숙·서민원, 건축 의장적 측면에서 본 상하이 아르데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제59호, 2006.12
12. 김문덕, 네덜란드 근대건축이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조형연구, 건국대학교 조형연구소 통권 제9집, 2001
13. 최재석, 암스테르담과 건축의 형성과 전개과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87호, 1996
14. http://en.wikipedia.org/wiki/Indonesian_architecture
15. <http://www.tuforo404.com/tag/joglo>
16. <http://homysphere.com/joglo-javanese-traditional-home-architecture>
17. <http://tippinthescapes.wordpress.com/2008/04/15/amsterdam-great-architects-3/>
18. <http://www.artnetherlands.com/GoldenAgeArch.htm#roll>
19. <http://www.iis.u-tokyo.ac.jp/~fujimori/heritage/artdeco.html>

[논문접수 : 2011. 03. 31]

[1차 심사 : 2011. 04. 19]

[게재 확정 : 2011. 05. 06]